영규 대사와 800의승 역사적 진면목 조명

11월 4일, 세미나 개최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와 윤상현 국회의원실은 11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영규대사와 800의승-그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다'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의병장 조헌과 700의병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하는 영규대사와 의승군들의 활약과 호국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역할' 을,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영규대사와 의승의 청주성 · 금산전투' 를,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가 '임진왜란 참전 의승의 공적과 추념사업' 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윤용출 부산대 역사교육과 교수,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참여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는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영규대사와 의승군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연 이기영 20주기 국제학술행사 열린다

한국불교硏, 11월 5일 개최

한국 불교학 1세대인 불연 이기영 박사 20주기를 맞아 국제학술행사가 열린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11월 5일 오전 10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보살-대승불교 수행자의 이상' 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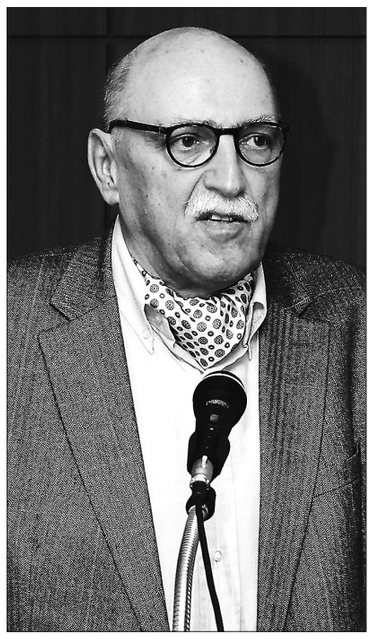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유가행파의 보살 : 무착의 전기에 보이는 공성의 통찰과 대비심' 을, 크리스티나 셰러 숍 로잔느 대학 교수가 '샨티데바의 승천 : 인습을 초월한 철학자 보살' 을,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가 '삼계교 신행 스님의 보살행과 사회적 실천' 을, 남동신 서울대 교수가 '원효, 성속불이의 거사불교' 를, 베르나르 포르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보살에 대한 인식 변화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를, 정호영 충북대 교수가 '보살 그는 누구인가 : 불연 이기영 선생의 보살관' 을 발표한다.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이기영 박사 20주기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02)762-5624

신성민 기자

세계 석학들 인도 · 초기 불교 흐름 말하다

(재)리앤원, 10월 21 · 22일 '인도 고대불교 찾아서' 워크숍 · 강연



하리 팔크 독일 베를린대 명예교수

"아쇼카王 이전 석조물 없어
석조 조각 · 명문 등 '혁신' 이뤄
불교 숭앙… 미신 배척 문구도"

인도불교사와 불교문헌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리 팔크(Harry Falk) 독일 베를린대 명예교수와 리처드 살로몬(Richard Salomon)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방한했다.

이들은 (재)리앤원이 10월 21~22일 '인도 고대불교를 찾아서' 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워크숍 · 강연회에 참석해 인도와 초기불교 연구 현황 등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불자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 10월 2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아쇼카왕 이후의 인도 종교 변화와 간다라 지역에서 나온 불경 필사본에 대한 연구를 각각 강연했다.

'돌에 새긴 제왕의 말: 아쇼카와 당대 인도 종교의 흐름' 을 주제로 강연한 팔크 교수는 아쇼카왕이 인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팔크 교수에 따르면 석주 칙령으로 대표되는 아쇼카왕 이전에는 인도에서는 석조 건물이나 조각이 없었다. 무속이나 미신 등 전통 종교들이 민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불교를 숭앙했던 아쇼카왕은 처음부터 석주를 세우지 않았고, 암석에 자신의 메시지를 새겼다.

이에 대해 팔크 교수는 "아쇼카는 암석에 새긴 명문에서 신과 합일을 이르려면 승가에 귀의할 것을 비롯해 이전의 전통 종교와 무속, 동물 공양 등의 저급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쇼카로 인해 비로소 석조 조각과 석각 명문 관습이 시작되고 브라흐미 문자도 고안됐다는 게 팔크 교수의 설명이다. 석각과 석주 유적들은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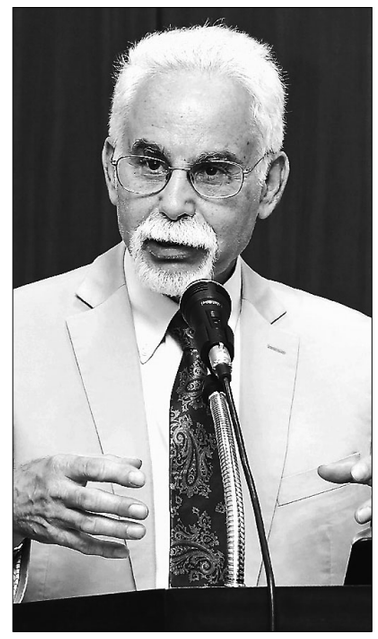
팔크 교수는 "아쇼카는 인도 문자의 발명자이자 창시자"라면서 "4면 사자상 석주는 이오니아 석공들이 인도로 넘어와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살로몬 교수는 '초기 불교경전 필사본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을 통해 1994년 영국박물관에서 발견한 간다리어 불경 필사본을 소개했다.

간다리어는 인도 서북지역의 방언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불교 문헌에 사용된 주요 언어 중 하나였다. 간다리어는 중기 인도-아리아 언어군에 속하는 것으로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돼 팔리어 등과는 자매관계에 있다는 게 살로몬 교수의 설명이다.

살로몬 교수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간다리어 필사본은 하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몇 가지가 더 발견됐다"면서 "이에 따라 팔리어로 기술된 상좌부 대장경이 가장 오랜 불교 경전이라는 학계의 추정들이 재고하게끔 됐다. 실제 북방 전통 문헌 중 일부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팔리어 필사본보다 연대가 훨씬 올라간다"고 밝혔다.

살로몬 교수는 필사본 연구가 '많은 불교(Many Buddhism)' 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초라고 했다. 그는 "현재 발굴된 간다리어 필사본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들 필사본은 '많은 불교' 가 존재했고, 우리가 아는 불교는 극히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불교 전래 당시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 분파와 문학, 교리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리처드 살로몬 미국 워싱턴대 교수

"1994년 간다리어 필사본 분석
다양한 언어로 경전 필사됐을 것
생각보다 많은 형태의 불교 존재"

'대장경' 비편, 흥전리사지 면모 실마리 되나

불교문화재硏, 유물 공개… 신라왕경 동급 유물 확인

지난 5월 완전한 형태의 국보급 통일신라 청동정병이 출토된 강원도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대장경'(大藏經)'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 조각이 나왔다. 이는 흥전리사지의 면모를 푸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10월 25일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 현장에서 '대장경' 비편과 방곽 아궁이를 갖춘 대형 온돌 건물지 발굴 성과 등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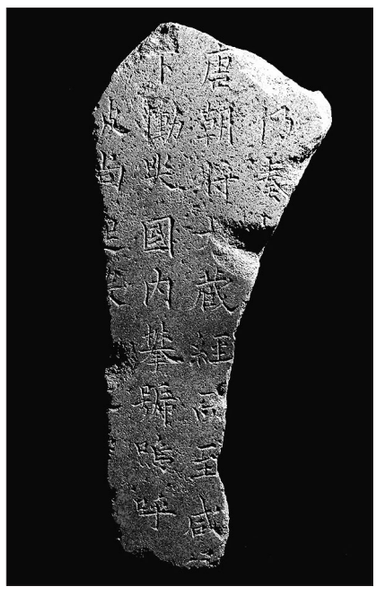
지난 8월 9일 착수한 이번 발굴 조사는 청동정병이 출토된 동원 1호 건물지의 서편과 서원 탑지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유구로는 방곽 아궁이를 갖춘 대형 온돌 건물지와 남북으로 긴 측면 1칸의 건물지 1동, 담장, 지정시설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흥전리사지에 주석했던 스님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당조장대장경이지함(唐朝將大藏經而至咸)' 이 새겨진 비편과 귀면와(鬼面瓦), 가릉빈가 상수막새 등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제작기법이나 조형적인 면에서 매우 완성도가 높아서 신라왕경(경주 지역)에서 장인이 파견돼 제작됐다는 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조각들을 통해 흥전리사지에 주석했던 스님은 김씨 성으로 신라왕경의 명문집안 출신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나라에 유학했으며, 당나라 대장경과도 접촉했고, 신라 최고 승정 지위인 국통(國統)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귀족 김氏 스님 주석 추정돼
동아시아 불교 교류 중요단초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존하는 통일신라 시대 비문 중에서 '대장경' 이 언급된 것은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 뿐"이라며 "이번에 출토된 비문 등을 통해 당시 선진문물인 당나라의 대장경에 대한 통일신라 승려들의 접촉과 연구가 지속해서 있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발견된 '대장경' 글귀가 새겨진 비 조각. 흥전리사지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다.

동원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신라 시대 온돌시설이 확인됐다. 이번에 조사한 2호 건물지에서는 판석으로 만든 방곽 아궁이와 'ㄷ자' 형의 불길과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 구들이 조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흥전리사지는 창건 초기부터 폐사까지 기간이 짧은 탓에 유구가 중복되는 등 변형이 적어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미 발견된 '국통' 비조각과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의 금동번, 통일신라 청동정병 등을 통해 흥천리사지가 통일신라시기 위세 높은 사찰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삼척시는 흥전리사지의 성격 규명과 올바른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며, 현장에 방치돼 있던 삼층석탑과 귀부(龜趺), 석등 같은 문화재들에 대한 복원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전담수사관 전문 교육 첫 시행

전통문화교육원, 10월 24~28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문화재 전담수사관 24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전담수사관의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고서, 회화 등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에 관한 이해와 문화재 관련 법령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 수업이 진행됐으며, 수사관들이 동산문화재의 관리와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실무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적 답사도 이뤄졌다.

이번 연수에 대해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 과정을 마련해 문화재 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6년 11월 30일까지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불기2560(2016)년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안거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실천수행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가불자들에게 수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가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기 간 : 동안거 기간과 동일
2016년 11월 14일(월, 음 10. 15) ~ 2017년 2월 11일(토, 음 1. 15)
■ 동참금 : 2만원

입 재 식
● 일 시 : 11월 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홍 법 사
● 법 문 : 지홍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을 회향하신 분들에게 수여되는 안거증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참여한 재가자들에 한해 수행록 제공.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국 ☎ 051)501-7554